

### #3 집 / 낮&밤

낮, 아내 '이솜(30대 女)'이 현관문을 열어준다.

이솜                    잘 다녀왔어?  
선균                    ...

문밖에 서 있는 선균을 차분하게 안아주는 그녀.

이솜                    냄새가 많이 나네 ...

(cut to)

깊은 밤,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둘.

이솜은 그에게서 등 돌려 누우며 입을 연다.

이솜                    ... 왜 연락 안 했어?  
선균                    ... 응?  
이솜                    어제 내내 ... 연락 한 통 없었잖아. 어땠어 출장은?  
선균                    바빴어 미안해 ... 마지막 날이라 이동도 많았고,,,  
이솜                    ..... 요새 있잖아 ... 느낌이 너무 이상해 ...  
자꾸 ... 배가 불룩해지는 소리가 들려 ...

감고 있던 눈을 뜨는 선균.

선균                    ... 산부인과는?  
이솜                    (한숨) 똑같지 뭐. 당신이 말한 배란 유도제도 맞았어.  
선균                    ... (다시 눈을 감는다)  
이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6년 동안 ... 벌써 6주년이네, 내일이.  
선균                    자기암시야 그거.  
이솜                    (눈을 뜬다) ... 응?  
선균                    상상임신. 강박관념에서 오는 착각이라고.  
                         일종의 뭐, 미신 같은.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솜                    ... (다시 눈을 감는다)(열게 웃으며) 내가 정말 그럴까 봐?  
                         말했잖아,, 날 너무 약하게 생각하지마. 나 강해.

정적이 흐르고 ... 이내 팔로 눈을 가리곤, 힘겹게 입을 여는 선균.

선균                    ..... 강박증만,, 있을까?  
이솜                    ... 무슨 말이야?  
선균                    ... 상상임신 원인이,, 다양한 정서가 있잖아 사람은 ...

이솜                    꼭 그 원인이, 강박뿐일까?  
 … 오늘 되게 다른 사람 같다 당신. 출장 다녀오더니 …  
 (고쳐 누워 선균을 바라보며) 그래도 흥미롭네, 계속 얘기해봐.  
 또 어떤 정서?  
 선균                    … 뭐 ……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  
 분노나, 아니면, 죄책감 같은 거라던지 …  
 이솜                    …

선균을 뵈히 쳐다보는 이솜 … 이내 열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솜                    … 그런,, 사색에 잠길 줄도 알고. 흥미롭기는 한데 …  
 의사 선생님한테 사색은, 치명적인 약점 아니야?  
 선균                    …  
 이솜                    사색도 끊어, 담배 끊었을 때처럼 …  
 (선균을 안는다) … 참는 거 잘하잖아 당신 …

(♪ 시작되는 짜늘한 음악)  
 아내가 안아주고 있음에도, 눈을 가리고 있음에도 선균의 심란함이 느껴진다.

#### #4      집 / 아침

다음 날 아침, 안방. 캐리어의 지퍼를 조금 열곤, 손을 넣어 의사 가운을 꺼내는 선균.  
 그리곤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그 약병을 꺼낸다.  
 거실,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소파에 앉아있는 이솜.  
 선균은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한다.

이솜                    앉아봐 여보 …

부엌에 있던 선균이 그녀에게 다가간다.

이솜                    할 말이 있어 …

선균은 소파 테이블 위에 차 두 잔을 올려놓곤 그녀의 옆에 앉는다.  
 그리곤 그녀의 쪽으로 차 한 잔을 스윙- 밀어 넣는다.  
 출렁이는 차 …

이솜                    여보. 나 선물 받았어 … 6주년 선물 …

차가 출렁이다 멈출 즈음 그녀가 찻잔을 집어 입 앞까지 들어 올리며 말한다.

이솜                    어젯밤에는 ... 거짓말해서 미안해 ...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열은 미소를 띠는 그녀의 입 ...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솜                    오늘 말해주고 싶었어 ...  
(차의 향을 맡곤) 무슨 차야? 향이 좋네 ...

차를 한 모금 더 마신다.

이솜의 옆모습 ... 그녀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선균의 얼굴.

들고 있는 찻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나가는 이솜.

이솜                    기회를 주셨나 봐, 하나님이 ... 당신한테도 ...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나 ... 임신했대 ...  
그것도 둘이나. (고개를 돌려 선균을 바라보며) 쌍둥이..

고개를 돌린 탓에 드러나는 선균의 얼굴 ...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

선균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무서우리만큼 놀란 표정을 하고 있다.

이솜                    ... 왜,, 당신 왜 그래? .....

(cut to)

이솜의 손목을 부여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는 선균 ... 강력히 저항하는 그녀.

둘의 발화가 엄청나게 맞물린다.

이솜                    아 왜 그래-! 아 아파!  
선균                    뱉어,, 뱉어! 빨리,,! 화장실,,  
이솜                    아니 왜 그러는데-!! (손목을 뿌리치며)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선균 ... 다시 냅다 그녀의 손목을 잡곤 화장실로 끌고 가려 한다.

(cut to)

화장실과 조금 가까워진 둘. 실랑이는 계속된다.

선균                    토하라고 빨리,,!  
이솜                    아!! 미쳤어 당신?! 왜 그래 진짜!  
선균                    빨리,,  
이솜                    (손목을 다시 한번 뿌리치며) 아 이유라도 좀!! 말해봐!  
선균                    아니 일단 빨리 토하라고 지금-!!!

(cut to)

화장실, 번기를 잡고 미친 듯이 구토를 시도하는 이솜.

선균의 손은 그녀의 등을 빠르게 두들기며 구토를 응원한다.

선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최대한...  
                          (그녀의 등을 두들기던 손이 서서히 느려지더니)  
                          ..... 잠깐만... .. 내 애는 맞아..?

(cut to)

소파 테이블 위, 옆어져 있는 찻잔 ... 지지직-거리는 TV 화면.

바닥에 옆질러진 내용물에 지지직-거리는 TV 화면이 비춰 보인다.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솝.

그 옆으로 온 힘을 다 써버린 듯, 벽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는 선균.

(♪ 시작되는 짜늘한 음악)